

# 이재명 대표 광주 거리 유세에 지지자·시민 '인산인해'

### 전남대후문 상가 방문 인사 광주 총선 후보 8명 동행 시민과 함께 걸으며 셀카도

21일 광주를 찾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발품'을 팔아가며 광주시민들과의 소통의 폭을 넓혔다. 상가와 거리를 돌며 상인·시민들과 인사하고, '윤석열 정권 심판'을 내세운 거리 연설을 하며 총선 승리를 다짐했다.

이날 낮 12시경, 광주시 북구청 앞 호동로에는 이 대표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지지자들과 유튜브들이 몰려들었다.

정진욱·안도겸·조인철·양부남·정준호·전진숙·박균택·민형배 등 광주지역 후보들도 미리 도착해 시민들과 인사를 나누며 분위기를 띄웠다.

이 대표가 12시40분경 현장에 등장하자 지지자들과 시민들이 '이재명'을 연호했고, 이 대표는 손을 흔들며 화답했다. 이 대표는 중앙당 선대위원장들과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당연합 운영역 대표, 광주지역 후보들과 함께 전남대 후문까지 400여m를 걸으며 시민들과 인사를 나누고 사진을 찍는 등 민심 잡기에 힘썼다.

국밥집 등 식당가와 화장품 가게 등에도 들러 상인들과 대화를 나누는 등 시민들과의 접촉을 넓히려는 노력이 엿보였다. 이동 과정에 이 대표는 한 국밥집 앞에서 즉석 거리 연설을 하며 시민들의 주목을 받기도 했다.

그는 이날 오전 국립 5·18 민주묘지를 다녀왔다면서 5·18 민주화운동을 언급하며 현 정권의 실정을 비난했다. 이 대표는 "권력이 뭐라고 아무 죄없는 사람들을 대검으로 찌르고 총으로 쏘아 죽이고...그리고도 제대로 책임을 져느냐"면서 "그 짓거

리, 그 험한 짓을 한 정치 집단이 바로 국민의힘 전신 아니냐"고 국민의힘을 직격했다.

그러면서 "지금도 끝나지 않고 피해자들이 고통 받고 있는데, 반성하고 사죄하고 용서를 구하지는 못할 망정 아직도 북한군 개입·내란행위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지금도 그 본질은 변하지 않았다"면서 "국민들이 준 권력으로, 자기들의 범죄를 은폐하고 정적을 탄압하는 일, 백주대낮에 젊은이들이 생명을 잃어도 책임은 커녕 진상규명조차 방해하고 있다"면서 현 윤석열 정부를 직격했다. 또 "우리가 잠깐이라도 눈을 떠면 그들은 국가 주권을 부정하는 진짜 반역행위를 한다"면서 "국민이 주인이라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국민을 배반하고 거역하면 어떤 결말을 맞게 되는지 여러분의 손으로 확실히 보여 달라"고 호소했다.

이 대표는 또 "민주당은 국민이 승리하기 위한, 국민이 이 나라의 주권자임을 증명하는 도구"라면서 "제가 마음대로 정할 권력이 있지만 광주시민들에게, 광주 당원들에게 선택권을 줬고, 여러분의 손으로 광주를 대표할 주권의 대행자 후보들을 뽑으셨다"고 밝혔다. 이는 공천 과정에서 이른바 '비명횡사, 천명횡재'라는 공천 갈등에 실망한 지역 민심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천명(천 이재명)' 공천이 아니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광주지역 후보 8명과 함께 "압도적인 표 차이로 확실하게 승리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이처럼 이 대표의 짙막한 거리 연설에도 지지자들과 시민들은 "이재명"을 연호하며 호응했다.

점심식사를 마치고 나온 전남대 학생들도 이 대표에게 사진을 함께 찍어달라고 요청했고, 이 대표는 직접 학생들의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어주기도 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 등록일인 2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부겸 공동상임선대위원장 및 광주지역 국회의원 후보들이 광주 북구 운동동 국립 5·18민주묘지에 들어서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 "낙관론·막말 금지...단결해 총선 승리하자"

### 김부겸 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김부겸(사진) 상임선대위원장은 21일 "선거일이 20일 밖에 남지 않은 만큼 민심의 경고, 민심의 흐름을 빠르게 읽고 이에 대처해야 이번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광주에서 언론사 기자들을 만나 "최근 민주당의 지지율 반등에 고무돼 일부에서 낙관론이 나오고 있는데, 이는 패착이 될 수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중섭 전 국방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과 관련한 이슈로 지지율 반등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 지지율 상승에 고무되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 지지율이 빠르게 출렁거리고 있고, 아직까지 격전지가 많다. 그럴수록 바짝 긴장하고, 더욱 조심해야 한다"면서 "모든 후보들이 '막말'을 조심해야 한다. 말 한마디로 선거판이 뒤바뀔 수 있다"면서 민주당 후보들에게 '설화' 단속을 당부했다.

그는 특히 "강제 지역에서 말을 각별하게 조심하고 신경써야 한다"면서 "정권 심판"이 우리 슬로건이지만, 현 정부에 대한 막말 등을 심하게 하면 역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 위원장은 민주당의 '공천 갈등'과 관련하여 "이제 공천은 모두 끝났다. 그래서 논할 문제가 아니다"면서 "이제는 단결하고 단결해 총선 승리에만 매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대위 합류와 관련한 질문에는 "선대위 합류 때 고민이 많았다. 정치를 떠난다고 했는데, 원로 선배 정치인들이 '정치인은 당이 부르면 세상 없어도 따르는 것이다. 그게 정치인의 숙명이다'는 조언을 듣고 선대



위 합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향후 선대위 활동과 관련하여서는 "서울과 수도권, 그리고 부산과 경남의 낙동강 벨트 등 격전지 중심으로 움직일 것이다"면서 "지지율이 10%대에 머무르고 있는 20대 유권자들에 대한

마련도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앞서 이날 오전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민주당·더불어민주당연합 선대위 합동회의의 모두 발언을 통해 "김대중 대통령의 국민의 정부,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 문재인 정부, 세 번의 민주정부를 만들어 주신 곳이 이곳 광주였다"면서 "그러나 저희가 민주정부 4기를 탄생시키지 못해 아깝없이 지지를 보내주신 지역 당원 동지들과 사·도민들에게 반성과 함께 사과를 말씀을 드린다"고 사죄했다.

그러면서 "대선과 지방선거의 패배를 딛고 민주정부 4기를 꼭 만들어내겠다"면서 "대한민국을 맡겨도 될, 책임을 질 수 있는 차기 수권정당·대안정당으로 거듭날 것이다. 이번엔 정말 한 번 더 힘을 실어달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 尹, 민생특보에 주기환 전 국힘 광주시당위원장 임명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대통령 민생특보에 주기환(사진) 전 국민의힘 광주시당위원장을 임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주기환 대통령 민생특별보좌관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위촉장 수여식은 이관섭 비서실장과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한오섭 정무수석 등 대통령실 수석들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민생 과제 발굴과 민생 토론회 후속 조치 점검을 도와달라는 취지에서 민생특보에 임명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는 대통령이 연내 꾸준히 민생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한 만큼 주기환 민생특보를 통해 민생토론회 후속 대책 점검과 민생토론 과제 발굴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로 보이며, '호남 배려'라는 해석도 나온다.

주 특보는 앞선 지방선거에서 '협자'인 광주에서 국민의힘 광주시당 후보로 나서 역대 보수 정당 후보 중 가장 높은 득표율인 15.9%를 기록했다. 또



한, 광주시당 위원장을 지내며 광주지역 예산 확보와 당원 확장 등에 기여해왔던 만큼 광주 현안 사업 등을 챙기고 지역의 목소리를 대통령실에 충분히 전달할 것으로 기대된다.

호남 출신인 주 특보는 윤 대통령이 검사 시절 인연을 맺은 것을 계기로 측근 인사로 꼽힌다.

앞서 주 특보는 국민의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가 발표한 총선 비례대표 명단에서 당선 가능성이 20년 내에 들지 못했고, 24번을 받아 이후 후보직 사퇴 의사를 밝혔다.

국민의미래는 지난 20일 호남 인사와 당직자 출신을 당선권 내로 조정해 비례대표 추천 명단을 재의결했으나 주 특보는 명단에서 빠졌다. /최권일·오광록 기자 cki@kwangju.co.kr

UN WATER  
22 MARCH  
WORLD WATER DAY

2024 WORLD WATER DAY

# 세계 물의 날

함께 누리는 깨끗하고 안전한 물

2024. 3. 22. (금)  
영산강유역환경청 1층 대강당

영산강유역환경청